

# AI에 구제역까지 ... 닭·소·돼지고기 가격 폭등

### 구멍뚫린 방역에 서민 식탁물가 '비상' 유통상 사재기 조짐에 가격 더 오를 듯

구제역 확산으로 소,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닭고기는 품질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g당 1만5653원이었던 한우 1등급 지육가격은 지난 8일 현재 1만7242원으로 10.2% 올랐다. 돼지고기 도매가 역시 지난달 31일 kg당 4329원이던 것이 8일에는 4757원으로 9.9% 상승했다.

소·돼지고기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일부 중간 유통상들이 구제역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물량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이 지난 5일인데 벌써 오르는 것은 사재기 영향 때문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과거에도 구제역 사태 때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줄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유통상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돼지 농장으로의 구제역 확산 여부도 가격 폭등의 변수다. 쇠고기의 경우 국내 유통 물량의 50% 이상이 미국, 호주 등 수입산이어서 가

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돼지고기는 90% 이상이 국산이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닭고기 가격도 치솟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9일부터 일제히 닭고기 가격을 올렸다. 이마트는 4980원이었던 백숙용 생닭 가격을 9일부터 5280원으로 6%가량 올렸고 다른 주요 닭고기 상품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홀푸드와 롯데마트는 모든 닭고기 상품 가격을 5~8% 올렸다.

AI 영향으로 닭고기 수요가 줄었지만 설 연휴 이후 공급이 크게 줄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식용유와 무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를 데

다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치킨 값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자회의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계란 공급확대 방안, 축산물 수급 대응,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입산 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입위탁 물량 확대 등 공급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트럼프 정책·환율 변동성 '주목'

### 2050~2100포인트 박스권 유지

### 반도체·은행 증권주 저점 매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국회인준이 지연되면서 6일로 예정되었던 트럼프 정부예산안 제출이 지연되며 트럼프믹스가 주춤 거렸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트럼프가 2~3주안에 세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글로벌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도 주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글로벌증시의 상승으로 소폭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지난주 국내지수는 상승했지만 업종별 흐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메모리반도체 호황으로 1월말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낸드반도체사업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외국인 기관의 평가가 엇갈리며 정반대의 매매양상을 보였다.

9일 국제금융평가사 무디스는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소수지분 인수로 도시바의 기술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고 지분인수가 오히려 SK하이닉스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SK하이닉스를 4백만주 넘게 순매도 했고 같은 날 기관은 56만주, 개인은 340만주 순매수하며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SK하이닉스 하락과 함께 그 동안 시장상승을 주도했던 IT, 반도체 관련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고 채감경기 부진에도 그간 낙폭이 컸던 내수소비재주는 모처럼 반등세를 보였다. IT 업종의 단기상승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가격메리트가 발생한 내수소비재주에 단기적 관심은 높아 보이지만 시장주도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 되어 하기 때문에 실적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필자가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중요시하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많은 언급을 했었다. 외국인매매는 지수의 방향성과 주도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데 2월들어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IT,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고 단기 낙폭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통상 외국인은 환율이 상승하면 순매도를 하고 하락하면 순매수를 보이며 실적이 따라 순매수입종을 결정한다. 이달 들어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4분기 IT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였다. 외국인이 순매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순매도가 커지는 것은 최근 외부적으로 트럼프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약화되고 내부적으로는 탄핵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사례를 보면 삼성전자의 자사주매입 시기에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하며 순매도 했던 것도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번주에도 환율변동성은 이어지고 외국인수급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과 글로벌증시대비 양호한 밸류에이션메리트가 부각되며 코스피지수는 2050에서 2100포인트 박스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을 보인 반도체 장비주와 환율변동 영향이 적고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 증권주에 대한 저점매수는 좋아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단기 급락에 따라 종목별로 단기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기관의 대량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기관수급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aT 화훼센터 장미 거래 활발

### 벨런타인데이 앞두고 6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4일 벨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장미가 활발한 거래를 보이며 화훼사업센터(구 화훼공판장)의 이번 주(2월 6일~10일) 거래금액이 8억 5200만원으로 지난 주 대비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미 거래물량은 8만속으로 전주 6만5000속 대비 23% 증가했으며, 속당 평균거래단가가 또한 1만648원으로 전주 7846원 대비 36% 상승했다.

꽃다발이나 꽃바구니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적색장미 품종인 비탈, 푸에고, 레드이글의 경우, 평균거래단가가 전주 7715~9725원에서 이번 주 1만927~1만3339원으로 34~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꽃다발에 자주 쓰이는 튜립, 프리지아, 안개꽃, 리시안사 등도 벨런타인데이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거래물량이 각각 69%, 54%, 41%, 33% 증가하였다.

적색장미는 열렬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연인 또는 부부사이에 선물로 많이 사용되는데 장미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출근·아랫부분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잘라 물에 꽂아 수분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aT 조혜영 유통이사는 "우리 꽃을 이용해 졸업입학철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벨런타인데이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화훼소비액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데, 이런 기념일이나 특정 시즌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꽃을 즐기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aT는 누구나 언제든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aT센터 1층 로비에 설치한 꽃 자판기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이 직접 제작한 벨런타인데이 특별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전남·광주 관내 조합장, 시군지부장, 계열사 임직원들이 지난 1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7년 전남·광주농협 현장 농담(農談)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농가소득 증대·신성장동력 발굴 실현 주력”

### 전남·광주농협 현장 농담대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10일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전남·광주 관내 조합장, 시군지부장, 계열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남·광주농협 현장 농담(農談)대회'를 했다.

이날 현장농담 대회는 ▲2017년 전남·광주

농협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농담 토론 ▲경영목표달성 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농협은 올해 '농가소득 증대' '농·축협 균형발전' '지역사회 기여' 및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농업을 전남·광주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존재가치

는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며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데 농협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이흥목 본부장과 박태선 본부장은 "조직역량을 총결집해 농업인이 생산해 주신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여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삶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 농지은행 사업비 1226억 확보 상반기 70% 집행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226억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70%를 집행해 광주전남 농업인에게 활발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별 배정액은 ▲농지(과원)규모화사업에

461억 ▲농지매입비축사업에 160억 ▲경영회생지원사업에 419억 ▲농지연금사업에 32억 ▲경영이양직불사업에 154억원이다.

이에 전남본부는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권역별로 농지은행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업간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다짐했다.

윤석근 본부장은 "농업인의 자립경영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 70%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해 농지은행사업이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든 '1577-7770'으로 전화로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성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리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062-511-7800  
010-6832-9700

##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주역 1분 / 현정례식장 운영 연매출 약 60억 !! ▶감정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